

국민의당 안철수대표 제주 선언문

1960년대 영화 ‘졸업’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화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거기 보면 졸업하는 벤, 더스틴 호프먼이 연기했었는데요 그 벤에게 그 당시에 친구 아버지가 그런 조언을 합니다.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이 대세가 될 거야!” 그때 그 말을 했습니다. 정말 플라스틱은 그 이후로 저장용기부터 거의 모든 생활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변화의 순간은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대변화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합니다. “인류가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올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린 다보스포럼 마지막 날에 한 참석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만드는 새로운 산업혁명입니다. 정말 수많은 첨단기술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모바일, 3D프린터, 무인자동차,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등 이런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제품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산업, 사회, 통치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는 방식까지 혁명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전에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에 다녀왔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곳에서 자동차의 미래라는 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류의 미래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세계 최첨단 변화 현장은 꼭 가보려고 합니다. 그곳이 진정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선보이는 최고의 기술을 알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CES 즉 가전박람회를 제가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침 어제 국민의당 비례 1번으로 선출된 분이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입니다. 신 원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연구소라는 슬로건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1984년 연구소에 들어와서 30년 이상 한 우물만 판 과학기술 표준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하신 비례 2번은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입니다. 오 교수님은 학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십니다. 또 상향식으로 서울대 총장 후보로 선출되셨던 한국 기초과학계의 수장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렇듯 비례 1,2번을 과학기술계의 존경받는 인물로 선출한 것은 낡은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니다.

제가 아까 인사말에서도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20대 총선은 낡은 과거의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제가 낡은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3당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정치가 이제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도 공천학살, 셀프공천 그런 낡은 기득권싸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를 나누러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세계경제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창조하는 과정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피터 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주도가 구상하는 전기차 공급과 스마트 그리드가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주국제전기차 엑스포에는 굴지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기차 히든챔피언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대기업 전시관이 아니라 중소기업 전시관을 굳이 찾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들었던 이유입니다. 새로운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에 꼭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히든챔피언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 모험적으로 뛰어든 중소기업들이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도 봤습니다만 국민대학교, 목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등 대학생들이 만든 실험적인 전기차들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보여준 알파고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면서 미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알파고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응당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공포와 충격을 꿈과 희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정치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세계경제포럼 미래고용보고서를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보편화하면서 앞으로 5년간 선진국과 신흥시장을 포함한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새로 생겨나는 직업은 210만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 만에 일자리 500만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간절하게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국회에 가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급한 일만 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올해 바로 다음달 그것만 생각하고 5년 후에 벌어질 정말로 커다란 변화를 누구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체제의 저 낡은 시스템으로 우리는 결코 미래를 준비할 수도 개척할 수도 없다는 확신이 든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변화를 이끄는 사람, 변화를 뒤쫓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에 둔감한 사람입니다. 앨빈 토플러가 그랬습니다. 기업은 시속 16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는데 정치는 5킬로미터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고 법은 2킬로미터로 더 느리게 간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치는 이보다도 더 느립니다.

기술혁명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당시에 그 영향 그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분명한 사실은 인공지능·로봇·사물인터넷·무인자동차·3D 프린팅·나노기술·바이오기술과 같은 기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혁명을 선도하는 국가와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급한 일만 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않다가 우리나라가 여기서 뒤쳐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도시 제주에서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위한 담대한 계획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미래일자리위원회부터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 산업자원, 노동 등 각 분야를 포괄하는 미래일자리위원회에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1년 예산의 1% 정도인 약 4조원 정도를 미래를 위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것을 합의합시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쟁의 울타리를 넘어서 자라나는 아이들, 청년들의 꿈을 위해서 정치권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글로벌 저성장과 미래 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지혜가 절실합니다. 건물만 짓는 형식적 창조경제를 넘어 기술과 문화의 융합이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미래가 와도 적응할 수 있도록 국민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다보스포럼에서도 밝힌 것처럼 지금 초등학생 절반이상이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초·중·고·대학 교육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초중고에서 소프트웨어와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교육혁명입니다.

높은 교육열 덕분에 충분히 준비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일자리는 없습니다.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산업화시대에는 산업화시대의 교육이 정보화시대에는 정보화시대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20년간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금 존재하는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교육이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 교육시켜도 사회에 나가서는 입사원서만 쓰게 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기본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육혁명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이 학생시절에는 학습능력이 뛰어나지만 50대만 되더라도 거의 꼴찌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앨빈 토플러가 65세 이상을 재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40세 이상을 어떻게 재교육시키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점점 더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중장년층을 재교육하는데 국가가 투자할 것을 합의합시다. 국민의당은 미래를 위해서 태어난 당입니다. 과학기술자들을 비례대표 1·2번에 모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번 총선용 로고송으로 로봇태권도브이를 채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미래를 위한 당이구나 과학기술 중요한 당이구나. 어떻게 로고송까지 로봇태권브이를 쓰느냐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 정치는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와주는커녕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기득권 싸움에 올인하느라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양당에서 미래 먹거리 고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가 그랬습니다. “미래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마치 근처 산기술의 광산 소유자라도 되는 듯이 적극적으로 답사하고 발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파고가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미래를 주도적으로 열어가려면 먼저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거나 편안함에만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민국의 명운이 달려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제2의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곳 제주에서 시작된 미래를 위한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가 걸림돌이 아니라 미래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2016.3.24)